

## 높은 교육열, 낮은 독서열

이영수

경기대 교육학 교수



“뉘 둥근 달이 하늘 위에 있다 하노  
취해보니 술잔 밑에 분명히 있네  
잔을 기울이니 달 또한 나의 창자 속에 드는구나  
몸 안팎에 유광이 서로 오가니 그 아니 좋은가”

이 시는 조선시대 명종 때 정승을 지내던 상진(尙震)이라는 사람이 아들과 함께 달밤에 술을 마시면서 지은 시라 한다. 깊은 가을날 한 잔의 술잔에도 정취를 찾았던 상진의 심정을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몸 안팎으로 스며드는 정기를 느끼면서 우주를 이해하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넘쳐나는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지적 풍요로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독서 빈곤의 정신적 기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진의 시를 읽으면서, 우주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지적 풍요로움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빈곤함을 다그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은 외면할 수 없다. 지금 사회 도처에서 과도한 교육의 열정을 느끼지만, 여전히 지적 공허함과 그 여유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깨우쳐 준다. 그렇게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빈곤한 지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하자면,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데, 왜 책은 그다지 팔리지 않는가? 우리는 교육에 관한 한 ‘풍요 속의 빈곤’을 체험하고 있다. 너도나도 교육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여전히 독서와 사색에는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실 교육과 독서는 이질적인 것이 아니다. 교육은 독서와 사색의 결과이다. 배우고 생각

---

하는 자세(學而思;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는 지적 능력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책읽고 생각하는 일에는 무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상 교육이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설 때 책읽기의 즐거움 혹은 고통은 언제나 함께 하는 버팀이다. 도대체 책읽기와 생각하기를 넘어서는 교육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넘쳐나는 교육열과는 달리 형편없는 독서열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함께 해야 할 두 측면이 다른 곳에서 다른 방향을 걷는 것은 우리 교육의 불구성을 간접적으로 얘기해준다. 어쩌면 우리의 교육은 깊은 독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독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수많은 대답 사이에서 자기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용적인 답을 찾기 위해 책을 찾는 것은 독서 행위라 볼 수 없다. 책을 통해서 깊은 사색의 기운을 느끼게 되고 우주의 기운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백의 자구에서 느낄 수 있는 감흥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독서의 쾌감이며 효용이다. 우리는 책을 통해 지식을 얻기보다 사람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고, 책 속에서 인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책을 객관적 사실의 보고로 생각하는 사람에게서조차 독서의 즐거움은 지적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의 편협함을 다스려 준다.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할 때, 높은 교육열은 당연히 높은 독서열로 결부되어야 한다.

저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면서 삶의 그리움을 되뇌일 수 있다면, 학력과 무관하게 깊은 사색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높은 교육열이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합리성이라 생각한다. 책 속에서 타인의 지적 고뇌를 발견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여름날 동구밖 머루나무의 자애로움을 배울 수 있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익힐 수 있다.

독서의 계절에 여전히 서점은 침묵하고 있다.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책보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이다. 풍성한 말잔치에도 불구하고 책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들은 드물다. 여기서 실상 교육의 빈곤함과 황폐함이 자리하고 있다. 높은 교육열이 책읽기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런 교육열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책읽기의 즐거움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은 마치 꽃향기도 모르고 화초를 키우는 이들과 다름없다.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에 대한 애정이 살아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 교육의 불구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높은 교육열이 높은 독서열로 이어지는 큰 변화가 이 가을, 대학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고대해 본다. ■

---

이영수/서울대학교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수학한 뒤, 단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경기대 교육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수신문』 및 『열린지성』(계간) 발행인으로 있다.